

■ 광주시의회·광주일보 주최 '지방의회 부활 20년' 토론회 지상중계



김한배 학회장 오재일 교수 이준문 위원장 조정관 교수 정재현 논설실장 오미덕 사무처장 문금주 기획관

# “국회-지방의회, 입법 분권 확립돼야”

광주시의회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2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일보와 광주시의회, 참여자 21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한배 한국거버넌스 학회장(호남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오재일 전남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준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조정관 전남대 교수,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 오미덕 참여자 21 사무처장, 문금주 광주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 20년의 평가와 향후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내용.  
○오재일 전남대 교수=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는 지역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는 지방의회가 헌법기구라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입법권에 있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입법권 균점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 독재시대에 국민의 독점적 대표성을 향유했던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이 아니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에 입법권을 배분하는 입법 분권이 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 조례 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산하 예산정책처 신설, 복수 상임위 허용, 상임위원 전문위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사회 안정과 관청의 문턱을 낮춘 점은 인정되지만 지방선거가 6번이나 실시됐는데도 여전히 본연의 의미와 기능이 상실된 채 정권의 중간평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의 후유증과 소지역주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준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그동안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능력과 역할이 성장해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법적·제도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갈수록 지방행정이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적 능력



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8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20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예산처 신설 필요

## 정당공천제, 공천비리·정치부패 만연케 해

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 의회공무원 및 전문위원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심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의 역할 및 지역민원까지 해결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유급보좌관제의 도입도 절실하다고 본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현재의 한국 지방정치 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차원의 자율적 정치성을 살리지 못하고 중앙 정치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1988년 이래 계속된 지역주의적 정당 구도 아래에서 각 지역의 맹주 정당이 그 지역의 중요 선출직 (특히 단체장)을 씌어주는 상환으로부터 지방자치의 파행성이 나왔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의 지방자치에서는 주

민 자치의 이상이 실현되어 간다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이권의 확대 재생산 연합이 지방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돋보이고 있다. 한 가지 더 지적할 부분은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책임성 측면에서 낙제점이라는 것이다.

우선 같은 정당출신으로서 유권자의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유착하여 행동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해본다. 우선 단체장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의 발전을 위해 단체장과 함께 노력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정재현 광주일보 논설실장=풀뿌리 민주

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정당공천제에 의한 지방정치의 왜곡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적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와의 예측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 공천제는 지역 정치 현실에서 공천비리와 정치부패를 만연케 했다.

지방자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과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함은 상식이다. 중앙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룬 큰 틀에서 중앙이 되어야 한다.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지역을 볼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중앙을 이루아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오미덕 참여자 21 사무처장=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장 크다. 이는 일당독점의 구도 하에 의정활동이 중앙정치에 예측되는 정파적 모습,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 등으로 시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비쳐왔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는 일반적인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할 수 잠재적 역량이 있다. 시의회는 일당독점 등의 한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어느 지역의 의회보다 진보적, 개혁적 성향이 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일당독점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자기개혁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 개인과 의회차원의 집단적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문금주 광주시 창조도시정책기획관=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을 통해 동반자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와 소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내년 국고사업 빨간불

## 예산 반영률 62%... 신규사업 대부분 누락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년도 핵심 국고사업 상당수가 각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요청액 대비 반영률도 62% 수준에 불과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앙 부처에 건의한 내년도 국고사업은 총 344건에 8조7332억원으로 이중 국고에 반영된 예산규모는 5조3949억원으로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금액과 비교해 볼 때 61.8%만이 반영됐다.

국고건의사업 가운데 신규사업(193건 1조2676억원)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고 계속 사업도 주요현안 사업이 일부 누락됐다.

국고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2960억원, 익산~순천간 전라선 복선전철화 442억원,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와 압해~압태간 새천년대교 등 7건 1142억원 등 사회간접자본사업 분야가 3조1599억원이다.

또 농림식품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산지물류센터와 품목별 생산·

유통 규모화,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116건에 1조1258억원이 반영됐고,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천일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등 43건 3436억원이 정부 부처 예산안에 들어갔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해안관광 활성화사업 75억원, 지리산 역사문화단지 조성 15억원, 거제도 관광자원화사업 30억원 등 53건 2000억원과 섬 종합개발사업 594억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전남도 최대현안 사업들인 F1 자동차경주대회 운영비 300억원과 사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 중 진입도로 개설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1000억원과 영산강 하구둑 대체교량 100억원, 압해~화원 연결도로 100억원, 무안공항과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400억원,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 용역비 100억원 등도 제외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美 애틀란티스호 성공 발사... 20일 귀환

## 우주왕복선 마지막 비행

미국의 우주왕복선 애틀란티스호가 8일 오전(이하 미국 동부시간) 발사돼 마지막 비행에 나섰다.

애틀란티스호는 이날 오전 11시29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케네버럴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며, 앞으로 12일간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지 42주년이 되는 오는 20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애틀란티스호는 당초 오전11시26분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발사 카운트다운 30여초를 앞두고 기술적 문제

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느라 발사가 3분여 지체됐다.

애틀란티스호에 탑승한 크리스 퍼거슨 선장과 조종사인 더그 윌리 미해병대 대령 등 4명의 우주비행사들은 이번 비행에서 국제우주정거장 내 실험실의 작동에 필요한 부품과 보급품을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애틀란티스호의 이번 비행은 1981년 4월12일 컬럼비아호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미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135번째 비행이자 마지막 비행으로, NASA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30여년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연합뉴스

##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 기자·한선교 출석 요구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KBS 장모 기자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대해 이번 주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장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해 가져온 노트 북과 휴대전화, 녹음기 등 3개 자료의 녹음 기록, 녹취록 작성 과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조만간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장 기자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뒤인 오는 13일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왕복항공으로 떠나는 **2011 여름방학 제주도 바캉스 상품 특가**

왕복항공 2명이상 출발가능!! 다른 일정, 다른 날짜 출발가능

와~ 여름방학이다! 가깝고 아름다운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관광도 하고 해수욕도 즐기는 바캉스 - 최고의 일석이조 여행 가족모두와 함께 할수 있는 새롭고 알찬 일정의 대박여행

**알뜰특가 패키지** 해수욕+관광열차+新제주관광명소 탐방 2박 3일

성인 ₩289,000원~ 아동 ₩249,000원~

**윤택공 패키지** 마라도잠수함+우도유람선 투어+新제주관광명소 탐방 2박 3일

성인 ₩339,000원~ 아동 ₩299,000원~

**해수욕장 자유이용권 1인 10,000원권 증정!!**

•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팁, 선택관광, 준비물(신분증, 세면도구) • 공통포함사항 : 광주~제주 왕복항공, 숙박, 식사(관광/특급 호텔은 식식 불포함), 일정내 관광요금, 여행자보험, ★ 전상품 유가할증료 포함 ※ 우도, 마라도 잠수함 사전예약 가능

★ 이호태우 해수욕장 자유시간 -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약수시음) - ★ 휴머리자연생태공원 - 국제평화센터 - ★ 꽃지생태숲 및 물레길 체험 - ★ 코끼리쇼 - 평화박물관(일본군 지하요새) - ★ 제주에코랜드 생태공원 관광열차 체험 - ★ 조랑말체험 또는 트릭아트 - ★ 휘닉스아일랜드 해양공원

(주)부민가자투어 예약센터 광주 Tel.(062)382-8201 제주 (064)748-3131